

# RISE 사업 연계 지역 다문화가족 학력 신장 지원 전략 연구\*

-부산 T대학의 역할과 남구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황미혜 · 권영은 · 김상수\*\*

(동명대학교)

1. 서론
2. 정책적 배경
3. 부산 남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4. 부산 T대학의 연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사회 혁신목표와 연계하여, 지역 대학이 다문화가족의 학력 신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T대학이 관할 지자체인 부산 남구와 협력하여 실시한 다문화가족 47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자녀 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취득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였으나, 재정적 부담, 자녀 돌봄,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을 주요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일본, 영국, 미국)의 학력 인정 제도 시사점을

\* 본 논문은 2025년 동명대학교 라이즈 사업 남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 결과 일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연구임.

\*\* 제1저자: 황미혜, 교신저자: 김상수, 공동저자: 권영은

바탕으로, T대학이 직업/평생교육 중심형 대학으로서 캠퍼스 자원을 개방하고 지역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자녀 돌봄 및 재정 지원이 결합된 맞춤형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다. 이는 대학이 RISE 사업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RISE 사업, 다문화가족, 학력 신장, T대학, 남구 실태조사

## 1. 서론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과 사회 통합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학력 신장은 한국 사회 적응과 자녀 교육 지원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검정고시 학습 경험 및 관련 정책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이윤진 2021; 김선숙 2022). 이러한 연구 공백은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대학을 지역 발전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여 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2030 글로벌 허브 도시 비전’ 아래 ‘부산형 RISE’를 추진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23).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부산 T대학이 부산 남구(Nam-gu) 거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학력 신장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남구 거주 다문화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학력 신장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일본, 영국, 미국의 학력 인정 제도는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셋째, RISE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T대학)은 다문화가족의 학력 신장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 2.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사례

### 2.1. RISE 사업과 지역 혁신

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략적 메커니즘이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대학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부산시의 RISE 계획에는 ‘사회 혁신을 통한 지역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회 물결(Social Wave)’ 구성 요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한국대학신문 2023). 이는 대학이 다문화가족 지원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학이 제안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임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시의 전반적인 RISE 비전에 필수적인 전략적 기여로 해석될 수 있다(권경훈 2025).

### 2.2.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검정고시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를 위한 검정고시 교육은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논의된다. 첫째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 통합 영역’이며, 둘째는 기초 문해력 및 정규 학력 인정을 목표로 하는 ‘성인 문해 교육 영역’이다(이윤진 2021). 이 두 영역의 결합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포괄적 지원을 요구한다.

결혼이민자에게 검정고시 제도는 단순한 졸업장 취득을 넘어 자아실현, 자녀 교육 지원, 취업 기회 확대,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김선숙 2022; 임은의 2023). 특히 김선숙(2022)은 이를 ‘압축된 재교육’이자 희망의 사다리라고 정의하며, 부모의 학력 신장이 자녀의 교육적 성과와 직결됨을 강조하였다.<sup>1)</sup>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은

1) 부모의 학력 신장이 자녀의 교육적 성과 및 전반적인 가족 복지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혼이민 여성의 검정고시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본국 학력의 무용성’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 인정받는 인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선택한다(이영호 외 2013). 하지만 여전히 낮은 한국어 쓰기 능력과 경제적 활동의 병행 문제는 이들의 학력 신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 2.3. 해외의 학력 인정 제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일본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sup>2)</sup>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25). 특히 외국인 및 이주 배경 학생의 경우 일본 내 외국인 학교 중등부를 졸업하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험의 중요성이 크다(法務省 2025). 일본 교육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과 ‘특별 지원’에 있다. 일본 고등학교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을 위해 정규 교육 과정 내에 ‘특별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일본어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며, 이를 정규 단위로 인정한다(東京学芸大学 2022). 대학 입시 단계에서도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 정원 제도’를 운영하지만, 주로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학생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장기 거주 이주민에게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존재<sup>3)</sup>한다는 한계도 보고되고 있다(東京学芸大学 2022). 이는 한

---

연구에서는 자녀를 위한 선택과 학업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 핵심 동기로 나타났다(김선숙 2022).

2)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시험(고등학교 검정고시)은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文部科学省 2025).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입학 자격을 얻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시험이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된다.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시험도 있으며(法務省 2025), 이는 연 1회,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연 2회 실시된다(文部科学省 2025). 외국인 및 이주 배경 학생의 경우, 일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중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본 내 외국인 학교 중등부를 졸업한 경우에도 일본 중학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12년 교육 과정을 수료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시험에 합격하여 18세에 이른 사람도 일본 대학 입학 자격을 갖는다(Study in Japan 2025).

3) 3년 이상 체류한 일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응시해야 하

국의 대학들이 다문화 전형을 설계할 때 체류 기간이나 언어 능력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국의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제도<sup>4)</sup>는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에게도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GCSE 2025; Open Study College 2025). 영국 시스템의 강점은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 경로(Alternative Pathways)’에 있다(Patterson, M., et al. 2009). A-Level 자격이 없는 19세 이상 성인을 위한 ‘Access to HE Diploma’와 GCSE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Functional Skills’ 자격은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BMet 2025). 무엇보다 영국은 성인 학습자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비 보조금(Grants)과 장학금(Bursaries)은 물론, 학습 기간 중 발생하는 ‘보육 비용(Childcare Costs)’까지 지원하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교육 시스템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GOV.UK 2025; London.gov.uk 2025).

미국의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sup>5)</sup>는 1942년 참전 용사의 사회 복귀를 위해 시작된 이래, 현재는 고등학교 중퇴자와 이민자의 사회적 재진입을 돕는 핵심 기제로 자리 잡았다(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42; Heller, B. H. 2024). 이후 일반대중에게도 확대되어 고등학교 중퇴자들이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는 어려움이 있다(東京学芸大学 2022). 또한, 외국에서 학력을 이수한 경우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력 인정 확인서 등을 공증받고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YJ 2025).

- 4) 영국의 GCSE는 16세 학생들이 의무 교육을 마칠 때 치르는 주요 평가 시험으로, 1986년에 도입되었다(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2025). GCSE는 학업 과목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다. 성인 학습자도 GCSE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다(Open Study College 2025). 공식적인 입학 요건은 없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2년 과정 학습 후 치러진다(GCSE 2025). 특정 이민 신분(예: 정착 지위를 가진 학생은 더 낮은 국내 학비(home fees)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학자금 대출 자격도 얻을 수 있다(London.gov.uk 2025).
- 5) 미국의 GED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 제도이다. 시험은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쓰기, 사회, 과학, 읽기, 수학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는 지필고사에서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전환되었는데(Patterson, et al. 2009), 이로 인해 합격률이 35% 감소하는 등 새로운 시험 방식에 대한 적응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GED 시험 외에도 TASC(Test Assessing Secondary Completion)와 HiSET(High School Equivalency Test)와 같은 다른 고등학교 학력 인정 시험도 존재한다.

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Heckman, et. al. 2010). GED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시험 합격을 넘어 ‘성인 기초 기술(Adult Basic Skills ABS)’ 프로그램과의 강력한 연계에 있다(Macias, E. 2021). 연구에 따르면 ABS 프로그램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학습자의 GED 취득률이 현저히 높으며(Reeder 2014; Middleton, K. L. 2017), 이는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 성과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또한 2016년 도입된 대학 준비도 벤치마크(College Readiness Benchmarks)는 GED 합격자가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거나 보충 수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학력 취득이 상급 학교 진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Heller 2024).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다문화가족 학력 신장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검정고시 강의 제공을 넘어 입체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 사례는 언어 장벽을 낮추는 ‘맞춤형 특별 교육 과정’의 중요성을, 영국 사례는 학업 지속을 위한 ‘보육 및 재정의 통합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미국 사례는 대학 진학 및 기초 역량 강화와 연계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각각 보여준다.

### 3. 연구 설계 및 실태조사 결과

#### 3.1. 조사 개요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부산 T대학 한국어교육다문화학과와 관할 지자체(남구)가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표집 기간은 2025년 9월~10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부산 남구 내 커뮤니티 형성이 활발한 베트남 결혼이민자(44명)와 중국 결혼이민자(3명)를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이러한 표집 편중(베트남 93.6%)은 부산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다음의 3.2.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부산 전체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 출신은 4,59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는 중국(2,638명)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법무부 2024). 또한 남구 지역은 베트남어 통번역 담당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조 모임의 활성화로 인해 베트남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강하여, 설문 조사의 접근성이 높았다.

설문지는 2021년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항을 기초로 지역 특성과 RISE 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다국어(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부산 다문화가족 현황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는 주로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sup>6)</sup>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 수요를 보여준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 수요를 보여준다. 또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구는 부산 내에서 다문화가족이 밀집한 주요 자치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 1〉 부산 다문화가족 현황(2023.11.1.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포함)	자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포함)
계	28,135	14,640	13,495
남	9,183	2,348	6,835
여	18,952	12,292	6,660

출처: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현황(2023)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6) 부산 남구 거주 기간 또한 다양했으며, 현재 체류 자격은 한국 국적 취득자, F-6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이 포함되었다. 가구 구성원 수는 2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다양했으며, 2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도 상당수 포함되었다(남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25).

〈표 2〉 연도별 자녀 수 증가 추이(2023.11.1.)

단위: 명

구분	'19	'20	'21	'22	'23.11.1.
결혼이민자(명)	25,127	26,050	26,808	27,389	28,135
자녀(명)	13,250	13,780	14,010	14,265	13,450

출처: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현황(2023)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표 3〉 구군별 다문화가족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부산	사하구	사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북구	남구	기장군	기타
다문화 가족	28,135	3,370 (12.0%)	3,033 (10.8%)	2,893 (10.3%)	2,542 (9.0%)	2,283 (8.1%)	1,888 (6.7%)	1,773 (6.3%)	10,353 (36.8%)

출처: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연보(2024)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표 4〉 출신 국가별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합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대만	미국	캄보디아	러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기타
결혼이민자	14,640	4,591	2,698	2,184	944	708	478	443	354	354	318	296
남	2,348	250	342	394	37	97	244	262	26	26	59	9
여	12,292	4,341	2,356	1,790	907	611	234	181	328	328	259	287
자녀	13,495	5,594	2,075	847	1,102	584	288	461	496	496	178	1,454

출처: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연보(2024)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 3.3. 주요 필요 및 어려움

남구 거주 응답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한국어 소통(21.3%)'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 비용(8.5%)', '문화/여가 시설(8.5%)'순이었다. 이는 전국 통계에서 '어려움 없음'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성가족부 2022)와 달리, 지역 내 미시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언어 장벽이 심각함을 시사한다.

〈표 5〉 부산 남구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주요 불편사항(총 응답자 47명 기준)

불편사항 범주	응답자 수	비율 (%)	주요 내용
한국어 소통	10명	21.3%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주거 비용	4명	8.5%	높은 주거비용 부담
문화/여가 시설	4명	8.5%	문화 및 여가 시설의 부족 또는 부적절성
기타	4명	8.5%	차별/편견, 의료 시설, 교통 불편 (응답자별 상이)
자녀 돌봄	1명	2.1%	자녀 양육 관련 문제
<b>총계</b>	<b>23명</b>	-	-

출처: 남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5)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 3.4. 학력 열망 및 대학 진학 시 장벽

조사 결과, 검정고시 미소지자 중 상당수가 취득 의향을 보였으며, 특히 T대학의 검정고시반 개설 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24명 중 17명으로 높게 나타났다.<sup>7)</sup> 그러나 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의 장벽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자녀 돌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 진학 고려 시 주요 어려움(총 응답자 29명 기준)

어려움 범주	응답자 수	비율 (%)
재정적 부담 (학비 등)	9명	19.1%
자녀 돌봄 문제	7명	14.9%
한국어 능력 부족	7명	14.9%
이전 학업 준비 부족	2명	4.3%
직업 및 고용 불확실성	2명	4.3%
교육 환경 내 차별 우려	1명	2.1%
기타	1명	2.1%
<b>총계</b>	<b>29명</b>	-

출처: 남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5)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7) 남구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많은 응답자가 이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남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25).

## 4. 부산 T대학의 연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남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T대학이 RISE 사업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전략을 4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제안한다.

### 4.1. 캠퍼스 자원의 지역 거점화: Open UIC 전략의 확장

부산 T대학은 부산시 RISE 계획에 따라 ‘직업/평생교육 중심형’ 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다(메트로신문 2025).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대학은 ‘개방형 산학협력(Ope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이하 Open UIC)’ 모델을 다문화가족 지원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중앙일보 2025). 첫째, 물리적 인프라의 공유이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화/여가 시설 부족(8.5%)’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내 강의실과 편의 시설을 검정고시 교육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하는 지역 ‘거점화(Hub)’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 건국대학교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 시설을 지역 돌봄에 활용한 사례(건국대학교 2025)와 같이, 대학이 지역 사회의 물리적 구심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전략적 산업 연계이다. 부산 T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기술, 라이프스타일 산업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검정고시 취득이 단순한 학력 인정을 넘어 지역 특성에 적절한 정주형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RISE 사업이 추구하는 ‘지역 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다문화가족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 4.2.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부산 T대학은 관할 지자체인 부산 남구,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가 T대학과 관할 지자체의 직접적인 협력으로 수행된 것은 이러한 거버넌스의 기초가 이미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협력의 구체적인 방

향은 각 기관의 역할 분담에 있다. 이에 따른 부산 T대학은 교육 콘텐츠와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부산 남구는 대상자 발굴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 교육 센터 관리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이다. 이는 영국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자선 단체와 협력하여 이주민 교육을 지원하는 모델(BMet 2025)과 유사한 맥락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4.3.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T대학이 보유한 ‘성인 학습자 친화형’ 및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지원의 중요한 자산이다. 기존의 서비스 러닝(Service-learning), 리빙랩(Living Lab), 어드벤처 디자인(Adventure Design),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등의 교육 방법론을 다문화가족 검정고시 과정에 접목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GED 교육에서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점진적 책임 이양’ 모델을 활용하는 것(Macias, 2021)과 같이, 학습자를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4.4. 통합적 학력 신장 이니셔티브: 돌봄+장학 연계 맞춤형 검정고시반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분석을 종합할 때, T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단순한 강의 개설을 넘어선 ‘통합적 지원 모델(Integrated Support Model)’의 도입이다. 실태조사에서 대학 진학의 주요 장벽으로 지적된 ‘재정적 부담(19.1%)’, ‘자녀 돌봄(14.9%)’, ‘한국어 능력 부족(14.9%)’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보육 지원 연계(Childcare Integration)의 확보가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GOV.UK 2025)와 같이 학습자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T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교내 보육 시설을 활용하여, 검정고시 수업 시간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둘째, 재정 지원 설계(Financial Aid)의 확대이다. 미국의 Pell Grant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5)나 영국의 학비 보조금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RISE 사업비 및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다문화 장학금 제도 신설 구축의 필요성이다.

셋째, 결혼이민자 맞춤형 및 유연한 교육(Tailored & Flexible Education)의 도입이 요구된다. 일본의 특별 교육 과정(東京學芸大學 2022)을 참고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를 위한 이중언어 튜터링과 멘토링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생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 및 야간 수업, 블렌디드 러닝 등 유연한 학사 운영 도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 T대학이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다문화가족의 학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높은 학력 열망과 현실적 장벽(재정, 돌봄)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대학은 지역사회와 거점으로서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산 남구의 다문화가족은 장기 정착하며, 다양한 생활 양태를 보이는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생활 주요 불편사항은 한국어 소통, 주거 비용, 문화/여가 시설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 진학 시에는 재정적 부담, 자녀 돌봄, 한국어 능력 부족이 주요 어려움으로 파악되었으며, 평생교육 강좌로는 컴퓨터, 요리, 운전 등 실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 검정고시 취득 의향과 부산 T대학 검정고시반 참여 의향이 높았으며, 검정고시 취득이 자녀 학업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T대학은 RISE 사업의 사회 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캠퍼스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교육 및 직업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검정고시반 개설은 다문화 가족의 학력 신장 및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부산여성 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지역 평생교육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부산 T 대학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지원의 거점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RISE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은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과 관할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화형(Bottom-up) 다문화 지원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증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습-돌봄-재정이 결합된 패키지형 지원 전략을 도출한 점은 향후 RISE 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 대상이 부산 남구 거주자 중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44명)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다문화가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표집이 요구된다. 둘째, 제안된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 지표(KPI) 개발 및 장기적인 추적 조사가 향후 후속연구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2025). 건국대학교, RISE 이니셔티브 통해 혁신 허브로 부상, <https://www.konkuk.ac.kr>(검색일: 2025.09.16.).
- 권경훈(2025). 부산형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5년 동안 1조원 투입,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검색일: 2025.09.15.).
- 김선숙(2022). 결혼이주여성들의 고등학교 학력 취득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검정고시 학습자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5(3), 37-7쪽.
- 메트로신문(2025). 부산 T대학, RISE 사업 발대식 개최, <https://www.metroseoul>.

- co.kr(검색일: 2025.09.03.).
- 법무부(2024). 통계연보: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 \_\_\_\_\_(2024). 통계연보: 시군구별 결혼이민자 현황.
- 부산광역시(2023).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현황.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이영호 · 정승국(2013). 학력변인에 의한 외국인수용자의 다문화요인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연구>, 61(0), 179-206쪽.
- 이운진(2021).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자의 학력 신장 교육: 검정고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8(0), 87-100쪽.
- 임은의(2023). 결혼이주여성들의 검정고시 학습 경험과 과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5(1), 25-49쪽.
- 중앙일보(2025). 동명대, 부산 전략산업 중심 Open UIC 구축, <https://www.joongang.co.k>(검색일: 2025.10.05.).
- 한국대학신문(2023). 부산시, 라이즈 통해 2030년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꿈꾼다, <https://news.unn.net>(검색일: 2025.09.11.).
- BMet(2025). GCSE's For Adult Learners, <https://www.bmet.ac.uk>(검색일: 2025.09.14.).
- GCSE(2025). 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https://ceea.org.uk>(검색일: 2025.09.16.).
- GOV.UK(2025). Grants and bursaries for adult learners, <https://www.gov.uk>(검색일: 2025.10.21.).
- Heckman, J. J., Humphries, J. E., & Mader, N. S.(2010). The GED, IZA Discussion Paper No. 4975, <https://papers.ssrn.com>(검색일: 2025.10. 21.).
- Heller, B. H.(2024). GED® College Readiness Benchmarks and Post-Secondary Success, EdWorking Paper No. 24-914.
- London.gov.uk(2025).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https://www.london.gov.uk>(검색일: 2025.10.13.).
- Macias, E.(2021). A New Purpose in GED Education: Towards the Empowerment and Civic Engagement of “Push Out” Youth, *Journal of Critical Thought and Praxis*, 10(2), 1-15.
- Middleton, K. L.(2017). The Effect of GED Candidate Race and Motivation Factors on Exam Outcomes, Walden University, 1-109.
- Open Study College(2025). GCSEs for Adults, <https://www.openstudycollege.com>(검색일: 2025.10.01.).
- Patterson, M., et al.(2009). Preparation for and Performance on the GED Test, GED Testing Service Research Studies 2009-2, 1-40.

- Reder, S.(2014). The Impact of ABS Program Participation on Long-Term GED Attainment, Portland State University, 1-12.
- Study in Japan(2025). 입학 자격, <https://www.studyinjapan.go.jp>(검색일: 2025.09.12.).
- 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1942).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 program, <https://www.researchgate.net>(검색일: 2025.09.01.).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5). Pell Grant Program., <https://www.ed.gov>(검색일: 2025.09.14.).
- YJ(2025).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께서는 시험 응시 제출서류가 복잡합니다, <http://www.yj.co.kr>(2025.10.11.).
- 文部科學省(2025). 高等學校入學資格 Q&A, <https://www.mext.go.jp>(검색일: 2025.08.12.).
- 東京學芸大學(2022). 高等學校における外國人生徒等の受入の手引, <https://www2.u-gakugei.ac.jp>(검색일: 2025.08.16.).
- 法務省(2025). “中學校卒業程度認定試験”, <https://www.moj.go.jp>(검색일: 2025.08. 28.).

## 필자 소개

성 명 황미혜  
소 속 동명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전자우편 tumhh@tu.ac.kr

성 명 권영은  
소 속 동명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전자우편 yekwon@tu.ac.kr

성 명 김상수  
소 속 동명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전자우편 kissoo@tu.ac.kr

## Abstract

# A Study on Strategies to Support the Academic Advancement of Local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nection with the RISE Project

## - Focusing on the Role of T University and a Survey in Nam-gu, Busan -

Hwang, Mi-hye · Kwon, Young-eun · Kim, Sang-soo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develop concrete strategies for a regional university to support the academic advanc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linking this to the 'Social Innovation' goal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project.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T University(Busan) in partnership with the Nam-gu Office, targeting 47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findings revealed a high aspir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to acquire a high school equivalency diploma(Geomjeong-gosi), primarily to support their children's education. However, they recognized financial burdens, childcare problems, and insufficient Korean language skills as major barrie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core strategy: T University, as a 'Vocational/Lifelong Education-Centered' institution, should open its campus resources and collaborate with local government bodies to provide customized Geomjeong-gosi programs. This presents a practical way for the university to fulfill its role as a regional hub for the RISE project and contribute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RISE Project, Multicultural Families, Academic Advancement, T  
University, Nam-gu Survey

투고일 2025. 10. 27 / 심사일 2025. 11. 13 / 게재확정일 2025. 11. 18

